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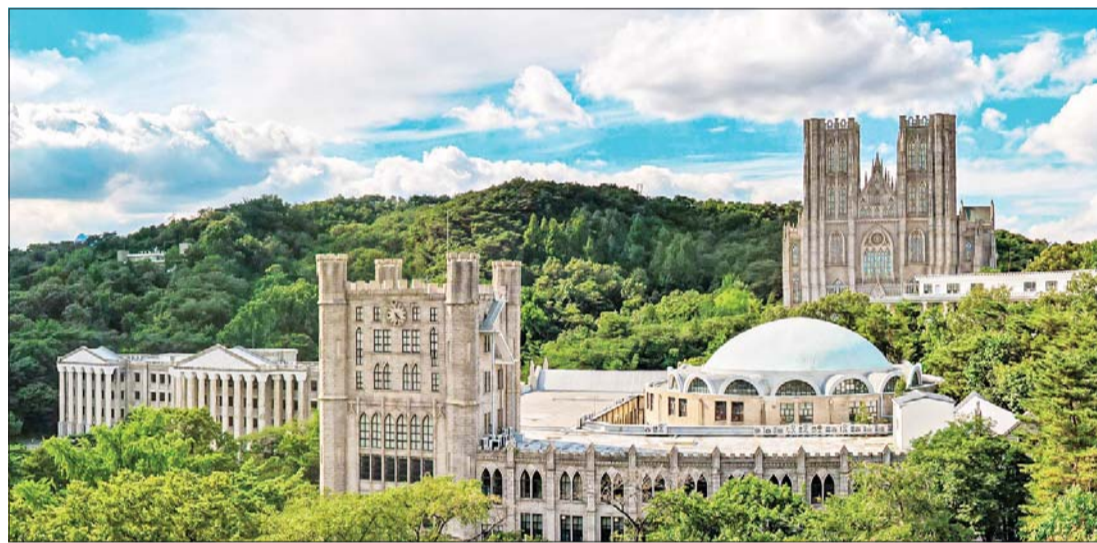
‘의대정원·자유전공·학폭반영’ 변수 작용 논술 활용 등 대학별 맞춤전략 마련해야

2025학년도 일반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대학들은 이 기간에 3일 이상 원서를 신청받는다. 대학별로 원서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은 물론, 마감시간도 상이하므로 사전에 원서접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2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일반대학의 총모집인원은 전년보다 2683명 늘어난 34만6584명이다. 이 중 수시모집 비중은 79.5%로, 27만5837명을 195개 대학에서 모집한다. 전년 대비 4729명 증가한 수치로, 수시모집 비중은 최근 5년 중 선발비율이 가장 높다. 수시 전형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위주(교과) 15만6763명 ▲학생부위주(종합) 8만342명 ▲논술위주는 1만2210명 ▲실기/실적위주 2만1846명 ▲기타 4676명 등이다. 정원내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12만9834명, 대학별독자적기준·특기자·사회통합전형(지역/기회균형)·지역인재특별전형 등 특별전형 11만5932명이다. 정원의 전형으로는 3만71명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확대됐다.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에는 1469명 늘어난 총 4485명(정원 내)을 전국의 의대에서 모집한다. 이 중 수시모집으로 67.1%인 3010명을 선발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소재 12개 의대에서 1294명(수시 756명/정시 538명), 비수도권 27개 의대에서 3191명(수시 2254명/정시 937명)을 선발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많은 대학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계열·단과대 중심의 광역모집을 한다. 무전공제도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전공탐색을 통해 본인의 전공을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서울지역 대학들은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무전공 선발의 경우에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선발인원이 많은 경우가 흔하다. 대입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반영되지는 점도 특징이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이뤄진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전체 모집인원 10% 자유전공학부 선발



총 모집인원 중 절반 이상 수시 선발
논술우수자전형의·약학계열 수학 필수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는 2025학년도 총 모집인원 5384명 중 수시모집으로 55%인 2962명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 634명, 학생부종합전형 1533명, 논술우수자전형 477명, 실기우수자전형 318명 등을 선발한다. 정시모집에서는 수능위주전형으로 2197명을, 실기전형으로 225명을 뽑는다.

올해 경희대 수시모집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시 필수 응시 과목 지정 폐지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탐구영역 2과목 반영 ▲자유/자유전공(무전공) 모집(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위주 / 정시모집: 수능위주)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약 10% 선발(입학 후 100% 학과 선택, 일부 학과 제외)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634명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지역균형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는 학생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이 지원하는 전형이다. 교과종합평가 30%와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비교과(출결·봉사) 성적 70%를 합산해 총점 순으로 선발하는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부교과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모집으로 자율전공학부 49명, 자유전공학부 187명을 선발한다. 학과별 모집과 무전공 모집을 병행하는데, 특히 국제캠퍼스 교과전형은 대부분을 자유전공

학부로 선발한다.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모집은 교과종합평가에서 학업 역량만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총 1533명으로, 네오르네상스전형 1055명, 기회균형전형 388명, 고른기회전형 9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네오르네상스전형) 1단계는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2단계는 면접평가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최종 선발한다.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과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은 다단계 평가가 아닌 일괄합산 방식으로 진행한다. 서류평가 70%와 학생부 교과 성적 30%로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의 평가 요소와 비율은 일반학과와 자율전공학부가 구분된다. 전체 모집단위 공통 사항은 ‘학업역량(40%)’과 ‘공동체역량(20%)’이다. 이와 함께 일반학과는 ‘진로역량(40%)’을, 자율전공학부는 ‘자기주도역량(40%)’을 평가한다. 자기주도역량에서 과목선택과 탐색, 활동과 경험을 반영한다.

논술우수자전형은 총 477명을 선발한다. 논술고사는 ‘인문’, ‘사회’, ‘자연’, ‘의학’으로 나눠 실시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의·약학계열’은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실기우수자전형에서는 총 318명을 선발한다.



송주빈 입학처장



신입생 증원... 100% 논술전형 도입



2680명 선발 예정... 전년 대비 87명 ↑
고른기회·재직자전형 수능최저학력 미적용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6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보다 87명이 증가한 수치로, 학생부교과전형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1602명, 논술전형 361명,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 65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전형의 신설이다. 논술전형은 학생들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자 새롭게 도입됐으며, 합리적 추론과 논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수험생을 선발하기 위해 신설됐다. 고려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여 100% 논술로 361명을 모집한다.

논술전형의 인문계열은 인문·사회서술형, 자연계열은 수리논술 형태로 출제 예정이다. 출제 범위는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약 80분간 진행된다. 출제유형에 대해서는 본교 모의논술의 출제문항과 예시답안을 참고하면 된다.

수시모집에서 가장 비중이 큰 학생부위주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업우수전형, 사이버국방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으로 나뉘어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학교추천전형)은 학생부(교과) 성적 80%와 서류 20%를 합산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해당 전형 방식은 학생부(교과) 성적이 80% 반영되므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한 수험생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류평가에서는 교과 이수 충실도와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험생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하는 학업우수전형, 사이버국방전형, 계열적합전형, 고른기회전형, 재직자전형은 지원자의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학업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병행한 지원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업우수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계열적합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 종합평가로 5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7분간의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한다. 이후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단, 의학대학원자에게는 다중 미니 면접(MMI 면접)이 실시된다. 계열적합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른기회전형과 재직자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 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와 면접 성적 50%를 합산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6분간 진행된다. 고려대 수시모집 면접 평가는 모두 대면으로 시행된다. 이외 입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려대학교 입학처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 입학처장